

“광주아트홀 공연장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150석 규모… 스타인웨이 피아노·분장실·대기실 등 갖춰

‘목요일은 공연 보는 날’… 10개 단체 최대 8차례 공연 기회

“매주 목요일은 공연 보는 날.”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 자리한 ‘광주아트홀’은 지난 2012년 11월 문을 열었다.
음식점, 옷가게, 술집 등이 즐비한 거리에 공연장이 들어서는 건 조금 의외였지만 젊은 층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는 기대감이 도전을 가능케했다.
광주 아트홀은 빛소리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광주대 음악학과 최덕식 교수가 사재를 털어 마련한 공간이다. 음악인이 마련한 공연장인 만큼 음향 등에 신경을 썼고 풀 사이즈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마련했다. 150석 규모의 쾌적한 좌석과 최신식 LED 조명 시설, 분장실, 대기실도 갖췄다.
개관 공연으로 빛소리 오페라단의 ‘헨젤과 그레텔’을 무대에 올린 광주아트홀은 이후 블랙 코미디 오페라 ‘버섯 피자’를 비롯해 창작 오페라 ‘학동 엄마’,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 등 오페라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렸다. 또 대관을 통해 재즈, 연극, 뮤지컬, 아카펠라 등 다양한 작품들이 공연됐다. 매년 공연장 가동률이 높고 있는 것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공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광주아트홀이 2017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하는 ‘2017 문화 페스티벌-공연 보는 날’ 공모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준다.
기존 공연 일정지 주말에 많이 모여 있

는 점을 감안해 주중 하루인 ‘목요일’, 집중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공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다. 분야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실용음악, 아카펠라, 무용, 토크, 재즈, 마술 등 다양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10여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선정된 단체들에게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8차례까지 공연 기회를 주는 게 특징이다.
지역 예술단체에게는 좋은 기회다. 창의력과 개성 넘치는 작품만 있으면 대관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공연하며 인지도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이번 공모에서는 조명, 분장실 등 부대시설 사용비도 전액 지원하며 단 티켓 판매 금액은 5대 5로 배분한다.
마감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공연계획서와 함께 단체-고유번호증 등을 제출한 후 방문(오전 9시~오후 5시) 및 팩스 접수하면 된다.
광주아트홀 한은주씨는 “개관 6년차를 맞아 공연장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다”며 “공연 단체들에게도 자신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gwangjuarthall.com. 문의 062-227-74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광주아트홀 무대에 오른 뮤지컬 공연 모습.



150석 규모의 광주아트홀은 2017년 공연장을 무료 대관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광주·전남 교류 확대…문학 활성화 견인하겠다”

박관서 신임 광주전남작가회의 지회장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소가 광주에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광주 문학과 지역 문학의 유대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최근 광주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 박관서 시인(사진)을 신임지회장으로 선임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2년이 다.
박 신임회장은 “목포와 순천, 여수 등 지역에도 많은 문학인들이 활동하고 있

다”며 “광주와 지역 간 교류를 바탕으로 문학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문예르네상스 관련 남도문학벨트 구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문학르네상스 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출신 작고 문인 선양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선배 문인을 기리는 행사도 추모제 위주로 진행돼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터다. 이를 위해 작가회의는 (가칭)광주문학관 건립과 연계해 문학 활성화를 견인하고 창작 환경 개선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박 회장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학공동체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존의 마을가꾸기, 도시 재생사업은 미술 분야 특히 조형 조각이 많이 연계가 됐다”면서 “앞으로는 문학 분야도 적극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

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문학인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창작이라는 범주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주민들과 유대를 높이는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원들의 창작 고취와 친목도모를 위해 ‘광주전남작가상’ 제정과 대구와 광주를 잇는 영호남달빛문학인대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북 정읍 출신인 박 회장은 34년째 철도공무원으로 재직중이다. 현재 목포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계간 ‘삶 사회 그리고 문학’에 시가 추천돼 문단에 나왔다. 97년 제7회 윤상원문학상을 수상했고 지금까지 시집 ‘철도원 일기’, ‘기차 아래 사람냄’, 산문집 ‘일로써 주민 생애사’ 등을 펴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전현의 문화카레

“아로나 아브라함, 게리 알버트, 메리 제인 부스, 데이비드 캐론...”
매년 9월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911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린다. 지난 2001년 이후 한해 도 거르지 않고 거행된 행사다. 15주년을 맞은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희생자 가족 등이 참석해 그날의 참상과 희생자들의 낯을 기렸다.
추도식의 하이라이트는 롤콜(Roll Call)순서다. 검은 연기에 휩싸인 세계무역센터(WTC)가 내려앉은 순간, 함께 사라진 2977명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는 의식이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흥행 열풍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총 누적 관객 302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국내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최고 흥행작으로 떠올랐다.
영화의 주인공은 도쿄와 산골 마을 이토모리에서 사는 마츠하와 타키다. 두 남녀 학생은 꿈이 꿈속에서 뒤바뀌는 신비한 경험을 겪으며 성장충돌로부터 마을과 주민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영화를 본 독자라면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억의 힘

다. 여기에는 같은 날 펜타곤과 미국 생크빌에서 추락한 유니타이드 플라이트 93 항공기의 희생자, 1993년 WTC 폭탄 테러 기도로 사망한 희생자도 포함된다.
“누구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전도유망한 대학생이었다”는 희생자들의 설명이 보태지면 추도식장은 더욱 숙연해진다. 희생자 2977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와 이름 하나하나가 불릴 때 전해지는 비극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들의 고귀한 인생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 닿아서다. 이름이 ‘기호’와 다른 이유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김춘수의 ‘꽃’ 중에서는) 시인의 말처럼.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무엇보다 ‘너의 이름은’이 수백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는 코드는 ‘기억’과 인연이다. 주인공 마츠하와 타키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의 골자락을 붙잡으며 기억 같은 사랑을 꿈꾼다.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잊혀진 기억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기적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스토리는 실화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준다.
이제 며칠 후면 설이다. 겨울 바람 끝이 매서운 진도 팽목항에도 어김없이 설은 다가온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맞는 세 번째 설이다. 하지만 아직도 찬 바다 속에 있는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과 딸을 기다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억은 살아남은 자의 최선의 애도라고 했던가. 우리가 그날의 참사, 9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날은 멀지 않으리라.

세계 최대 만화 축제인 ‘코믹콘’ 8월 서울서 열린다

세계 최대 만화 축제인 ‘코믹콘’(Comic Convention)이 한국에서 처음 열린다. 영국에 기반을 둔 전시 전문 업체인 리드엑시비전스는 8월 4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믹콘 서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1970년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만화 팬들이 작은 전시회를 연 데서 시작된 ‘코믹콘’은 만화를 넘어 영화,

TV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를 포괄하는 대규모 박람회로 발전했다.
서울 행사에는 영화·드라마(영화 콘텐츠·스튜디오), 코믹·애니메이션, 게임(온라인·모바일·콘솔·VR·AR), 토이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되며 ‘코스플레이 챔피언십’ 등 이벤트도 열린다. 일일 입장권은 2만7000원.
/연합뉴스

시골목사 김선주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제안!

세속에 물든 사람들, 타락한 도시, 위기의 교회를 향해 띄우는 37가지 주옥같은 삶과 영성의 메시지



‘한국교회의 일곱 가지 죄악’을 펴낸 뒤 스스로 찾아간 두메산골 교회 8년의 세월 동안 기도와 침묵 가운데 써내려간 위로와 치유의 이야기

지난 봄 손녀딸이 열 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어 준 게 아직도 색이 바래지 않고 곱게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 이거 영감님 꼬실라고 이렇게 이쁘게 물들인 거 아니냐?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안 빠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다…….”
승합차에 타고 있는 교인들이 갑자기 배품을 쏟아내며 들쭉거립니다. _ 본문 25쪽에서

우리들의 작은 천국

4·6변형판 | 272쪽 | 글·사진 김선주 | 값 13,000원 CBS북스

